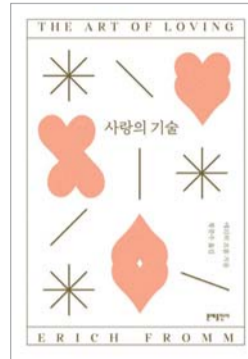


BTS가 전하려던 ‘자기애 그리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



리더의 책장

신 경 호 대한금속재료학회장



사랑의 기술

에리히 프롬 저, 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1만 2000원

2018년 9월 BTS를 대표해 UN 연설에 나선 RM은 “전 세계 젊은 세대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자”고 말했다. ‘혁’하며 내 시간이 멈추어버렸다. 같은 해 겨울 빅히트의 공식 SNS에 3권의 책이 소개되었다. ‘영혼과 사랑 그리고 성장을 이야기하다’라는 글과 함께 소개된 영혼의 지도, 사랑의 기술 그리고 데미안이 그것이었다. 순간 RM의 UN 연설에 대한 내 반응이 당연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BTS가 애써 전달하려 했던 ‘자기애 그리고 이를 실현하려는 실천의지’가 바로 필자의 인생도서, ‘사랑의 기술’의 한 줄 요약이기 때문이었다.

겨울방학을 마치면 3학년이 되는 중학생에게 ‘사랑의 기술’은 충분히 매력적인 제목이었다. 눈에 아른거리는 그 아이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기술이구나! 낯부럼하며 구입한 책의 비닐을 벗기며 카사노바를 떠올렸다. ‘앗’ 이게 아닌데. 목차를 훑으면서 스펀지처럼 피어났던 의구심은 이내 실망감으로 굳어 버렸다. 문장은 길고 문체는 낯설었다. 책은 두껍고 더디 읽혔다. 사랑에 대한 환상은 깨지고 사랑에 대한 논리는 불편했다. 난생 처음 내 돈으로 구입한 책이 아니었다더라면 혹

한의 겨울방학을 ‘사랑의 기술’과 힘겨루기하면서 보내는 일은 결코 없었을 터이다.

‘이제부터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 어떤 간섭도 하지 않겠다. 다만,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라’ 선친은 필자와의 사랑에 대한 논쟁을 마무리하며 선언했다.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상열지사’를 먼저 떠올리며 터부시하던 선친에게 사랑의 보편성(형제애, 모

나 행동이 선친이라면 용납할 만하지 아닌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나를 발견했던 것이다. 선친의 선언은 어느새 자신감이 지나쳐 경솔해 지거나 독단적이기 십상이었던 내게 신독(慎獨)이라는 처방이 되어 나를 감호(監護)하였다. 돌아켜보면 이 처방은 필자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단단하게 바로잡아준 인생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사랑의 기술’이 어렵사리 자신을 완독해

인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녀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점점 더 진해지는 것은 덤이다.

우리 가족의 화목한 모습이 보기 좋다며 요청하는 주례 부탁은 거절하기 어려웠다. 40대 초반 주례계(界)에 입문한 이래 부부의 연을 맺는 젊은이들에게 주례로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주문만큼은 빠짐없이 해왔다.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려들면 서로의 성장을 북돋우는 사랑은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변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라’는 응용편이다.

‘사랑의 기술’이 필자의 인생도서라고 해서 독자 여러분에게도 그만큼의 영향력을 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앞서 언급했던 바, 읽어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천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단언컨대 ‘사랑의 기술’을 읽고 실천하면서 당신은 그 이전의 당신과 확연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신경호 대한금속재료학회장은 다음 글쓰는 이로 서울대 의대 이정상 교수를 추천했다.

중3 시절 필자의 첫 내돈내산 책... 부친과 ‘사랑’ 논쟁도 책 읽고 실천 한다면 이전과 확연히 다른 사람 되어갈 것

성애·부성애, 성애, 자기애, 신에 대한 사랑)을 설파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야말로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겠냐고 반문하는 까까머리 중학생이 기특하셨던 모양이다. 간다 온다 보고만 하면 여행도 자유로웠고 만화방, 당구장 다니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러나 선친의 선언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철학적 편광필터라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행동하기 전에 이 판단이

준 내게 건네준 첫 선물이자 축복이었다.

상대방에 대한 남다른 이해와 배려에 놀라워하는 내게 ‘이게 원래 내 모습’이라며 자신감을 보이던 20대 중반, 아가씨와 결혼했다.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아내의 여전하다. 나는 애써 노력하지만 그녀는 맞춤복을 입은 듯 편안하게 사랑의 기술을 구사한다. 왕성한 사회생활 탓에 사랑의 대상이 많은 내가 그녀와의 관계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자위하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샘이 나기도 한다. 한 가지 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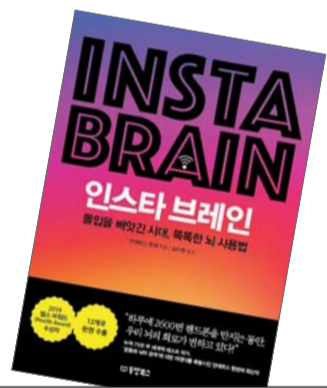
주말은 책과 함께

스마트폰 매력에?... 사람의 뇌는 ‘깜박깜박’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국을 한 수저 뜨더니 맛이 영 시원찮았는지 식탁에 밥숟갈을 탁 내려놓고는 동생을 쳐다보며 말했다. “저기 가서 그거 가져와” 그러자 옆에 있던 아버지가 “저기는 어디고, 그거는 뭐여?” 라고 물었다. 그때는 다 같이 깔깔대고 웃었지만 어머니가 자꾸 이것저것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머, 나 요새 치매인 가봐... 오이지를 했는데 까먹고 있었네”라며 다 쉬어 빠진 오이소박이를 밥상에 꺼내 놓았다. 반찬을 만들고 있어버린 것도 문제인데 오이소박이를 오이지라고 부르기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해 걱정이 근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같이 병원 가 봐야 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때쯤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해 준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

며칠전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이었다. 친구는 이날



인스타 브레인

안데르스 한센 지음/김아영 옮김/동양북스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이 다래끼에 걸렸다고 알려줘 놓고는 5분도 채 안 돼 그 사실을 깜빡했는지 “나 오늘 다래끼 나서 눈탱이 밤탱이됐잖아”라고 또 말했다. 대화장은 ‘ㅋㅋㅋㅋ’로 도배됐다.

이 친구는 요즘 말하거나 글을 쓸 때 명사와 동사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게 걱정돼 다른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그 역시 대화할 때 다음에 할 말이 딱 떠오르지 않아 ‘경도 치매’에 걸린

줄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가 왜 이렇게 건망증 걸린 사람처럼 구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 스웨덴의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인 안데르스 한센이 쓴 ‘인스타 브레인’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지 않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게 된다.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꿔 주머니에 넣어두면 문제가 해결될까?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뇌가 디지털 기기의 매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 위해 정신적 에너지를 쓰게 돼 집중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책은 이야기한다.

하루에도 수백번씩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는 이 요물에 인간이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금붕어만큼의 기억력을 갖게 된 인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296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jk1@

다정한 무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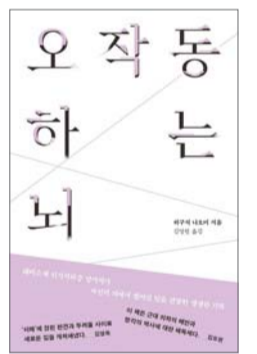
한승혜 지음/사우



저자는 우리가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재하고 타인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개인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개인주의는 타인 역시 자신과 똑같은 욕구를 지니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개인주의자는 개인들이 연대해 사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 공동체는 나와타인이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집단에 속하려고 하고 어느 편인지 밝히라고 강요당하기도 한다. 개인주의자로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다정한 무관심’이다. 서로에게 간섭과 참견을 하지 않고 나와 다른 타인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적당한 무관심의 사회, 그러면서도 곤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는 그런 따뜻한 세상을 바란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304쪽, 1만6000원.

오작동하는 뇌

히구치 나옴 지음/김영현 옮김/다다서재



요리를 해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 달력을 안 보면 계절을 알지 못한다, 냉장고에 뜯지 않은 우유가 가득하다. ‘오작동하는 뇌’는 치매 당사자가 ‘나의 뇌에서 벌어진 일들’을 관찰해 기록한 책이다. 저자는 어느 늦은 밤, 주차장에서 낯선 여자를 보게 된다.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순간 신원불명의 여성이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여자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났다. 몇 년 뒤 불면증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저자는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된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며 고통스러운 약물 부작용에 시달리던 저자는 50세가 되어서야 자신이 ‘레비 소체 인지저해증’(치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세상에 나간 그는 정상 사회의 오만한 동정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320쪽, 1만5000원.



▲ 홍콩에 이어 마카오도 텐안면 32주년 기념집회 금지
▲ 비트코인 급락에 금값은 반등...올들어 최고 /사진 뉴시스

▲ WTI 또 2년여 만에 최고...“일시적으로 80달러 넘을 수도”
▲ ‘백신 원액만 집중’ ‘식염수만 주사’...일, 백신 접종 실수연발



▲ 조지 플로이드 살해 경찰관, 30년 구형...변호사는 ‘집행유예’
▲ 이스라엘 차기 대통령에 아이작 헤르초그...바이든 “축하” /사진 뉴시스